

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과 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제168차 연차 대회에서, 3명의 형제들이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13명의 형제들이 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그리고 16명의 새로운 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이 철십인 제삼, 제사, 제오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철십인 제이 정원회의 셀던 에프 차일드 장로와 7틴 엘룩 장로와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가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이 세 분은 1996년 4월에 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았던 분들이다.

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은 13명의 형제들은 다음과 같다. 브라질과 메릴랜드와 오하이오 출신이 각각 1명이며, 텍사스 출신이 2명이며, 나머지 8명은 유타 출신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아토스 엠 애모림 장로, 이 레이 베이트먼 장로, 발 알 크리스트슨 장로, 로널드 티 할버슨 장로, 엘 엠 몬슨 장로, 메릴 시 욱스 장로, 브라이언 리차즈 장로, 넷 비 루에시 장로, 디 리 토블러 장로, 고든 티 와츠 장로, 스티븐 에이 웨스트 장로, 로버트 제이 웨튼 장로, 그리고 레이 에이치 우드 장로. 그리고 16명의 새로운 지역 관리 역원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지명받은 헨리 에프 아세베도 장로, 멕시코 남 지역의 후안 에이 알바라데호 장로,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의 모데스토 엠 아미스타드 장로, 남미 북 지역의 호라시오 피

아라야 장로, 칠레 지역의 구스타보 에이 바리오스 장로, 북미 서 지역의 크레이그 에이 불록 장로, 브라질 지역의 아드레마 다미아니 장로,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의 에드가르도 이 페르난도 장로, 유럽 서 지역의 프란츠 알가 그 장로, 남미 북 지역의 대니얼 엘 존슨 장로, 칠레 지역의 윌프레도 알 로페스 장로, 브라질 지역의 자이로 마자가르디 장로, 북미 남동 지역의 제스 에스 니베스 장로, 멕시코 북 지역의 아드린 오조아 장로, 아프리카 지역의 엠마누엘 오 오파레 장로, 그리고 남미 북 지역의 윌리 에프 주주나가 장로.

30개의 새로운 성전 건축이 발표됨

약 30개의 새로운 성전들이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멕시코, 그리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세워질 것이라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연차 대회를 마칠 때 발표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또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성전 수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51개 외에 47개가 될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금세기 말까지 100개가 되도록 하기 위해 2개를 더 건립했다면 좋겠습니다...성전이 건립될 도시명을 이 시간에 밝히지 않습니다. 성전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스테이크 부장님들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아토스 엠 애모림 장로 -

철십인 정원회



철십인 제이 정원회의 아토스 엠 애모림 장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퇴역 육군 장교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브라질 최고 군사법원 참모장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모림 장로는 이를 거절하고 리우데자네이루 레센데에 있는 자신의 집에 "하나의 원예사"로 남기로 했다. 그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꽃을 키우고, 자유롭게 나는 새들을 무척 아낀다. "전 새들이 저희 집 정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게 좋습니다."

애모림 장로는 어디에서 봉사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봉사하는가에 관심이 많다. 상파울루 성전장에서 해임된 후 그는 소속 와드 장로 정원회 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애모림 장로는 이 직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부름에 매우 만족해했다".

그가 이처럼 부름을 사랑하게 된 것은 1972년 침례 받았던 당시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침례 후 그는 자신

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지금에 와서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변화를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음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했다.

애모림 장로는 그를 확인하고 언젠가 이 새 회원이 선교 부장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한 겸손한 선교사를 떠올린다. 실제로 아토스 엠 애모림은 그 후 브라질 포르탈레자 선교부를 관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부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현역 군인 시절 현재는 스테이크가 있는 몇몇 작은 지부에서 지부장으로 봉사했다.

1932년 6월 14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출생한 애모림 장로는 1957년 5월 31일 마리아 알리스 페라로와 결혼했다. 이들은 1978년 워싱턴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슬하에 두 아들과 7명의 손자녀가 있다.

그는 애모림 사매가 "주님께 훌륭히 봉사하도록 늘 내조해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애모림 장로가 새로운 부름을 받았을 때 함께 놀라고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강한 간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애모림 장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과" 봉사가 한때 어려워지길 소망한다. "전 교회 일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제겐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전 모든 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최대 소망입니다." □

이 레이 베이트먼 장로 -

칠십인 정원회



레이 베이트먼과 마이러 베이트먼은 36년간의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뿌리인 유타를 떠나 캘리포니아, 뉴욕, 콜로라도, 미주리 등지에서 보냈다. “대개 친인척들과 멀리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제 직계 가족은 서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라고 베이트먼 장로는 이야기한다. “일년에 한번 정도 유타를 찾긴 했어도, 저희 소속 와드는 늘 고향 같았고, 복음은 저희들 삶의 중심이 되었죠.”

유타 주 샌디 태생의 베이트먼 장로는 1937년 10월 20일 말론 새뮤얼 베이트먼과 매리 암스트롱 베이트먼의 네 아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입학한 후, 1957-1959년까지 후에 캐나다 선교부 산하에 있게 된 토론토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귀환 후에는 유타 대학교에 들어가 일반 경영학을 공부했다.

대학 재학 중 베이트먼 장로는 유타 주 몬티셀로 출신의 마이러 도렌 오넷을 만났다. 두 학생은 1961년 11월 11

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런 뒤 캘리포니아 주 페르난도 밸리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얻은 첫 직장인 브리스를 마이어스 스킵사의 판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32년 간 그 회사에서 일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칼스바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중에 칠십인 부름을 받았다.

그는 또 주일학교 교사, 감독, 복합 지역 복지 책임자, 스테이크 선교부장 및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베이트먼 장로 부부는 2남 3녀의 부모이자, 8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베이트먼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손녀 하나는 태어나서 9일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손녀딸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 아이가 이미 가 있는 그곳에 저희도 갈 수 있게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베이트먼 장로 부부는 1997년 7월, 끝의 두 자녀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성전에서 자신들의 배우자와 인봉 의식을 받는 것을 지켜 보았다.

“저희는 난생 처음으로 다섯 자녀 내외와 함께 성전에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그리고 죽은 우리 손녀와 아주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천국을 잠깐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

발 알 크리스텐슨 장로 -

칠십인 정원회



어린 시절의 발 알 크리스텐슨 장로는 주일학교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되며 살아 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고 배웠다. 크리스텐슨 장로는 “당시 전 이 간증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라고 옛 일을 회고한다. “주일학교 교실과 교사가 생각나고, 이 교회가 참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전부 다 기억납니다.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실에 대해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1935년 9월 27일 유타 주 후퍼에서 레오나드와 제니 로우 릭비의 자녀로 태어난 그는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 일찍부터 일하는 법과 가축 돌보는 법을 배워야 했죠. 또한, 어떻게 농작물을 심어야 하고 소채원과 농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즘 흔히 말하는 편도 밑에서 자란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사랑이나 애정 혹은 보살핌이 결핍되었다는

느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55-1957년 캐나다 서부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크리스텐슨 장로는 유타 주립 대학에서 영어 학사와 중등 교육 행정 석사 학위를, 그 후엔 미시건 주립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가 장래 신부인 루스 앤 우드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 시절 통조림 제조 공장에서 서였다. 1958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자녀 다섯과 16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크리스텐슨 형제는 몇 년 간 군 복무를 하고,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육전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 평생 교육 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1965년엔 유타 대학교에 취업해 1996년에 학생처 부처장으로 은퇴했다.

총관리 역원이 되기 전에는 지역 대표, 스테이크 부장,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고등 평의원, 감독 및 감독단 보좌로 봉사했다. 1996년 7월 이후로는 애리조나 주 피닉스 선교부장을 지냈다. “날마다 이 부름 외에 다른 생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장차 교회 지도자가 될 2백 명이 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것은 너무도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그들을 사랑하며, 이따금씩 모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나 너 사랑하듯’을 부르곤 합니다. 봉사하기 위해 회생을 치르고 있는 선교사들과 이를 돕는 그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로널드 티 할버슨 장로 -

칠십인 정원회



할버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니, 전 참 많이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음이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할버슨 장로는 1936년 12월 18일 유타 주 욥든 시에서 말로우 할버슨과 힐다 탐린슨 할버슨의 네 아들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다. 욥든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웨버 주립 대학에 입학해 이곳에서 유타 주 후퍼 출신의 린다 케이 켄슨을 만났다.

그는 1957부터 1959년까지 노르웨이 오슬로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귀환 후 유타 대학에 입학한 그는 1960년 10월 13일 린다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4남 1녀의 부모인 할버슨 장로 부부는 11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유타 대학을 졸업한 뒤로는 부친의 사업체인 말로우 배관 및 난방 회사에서 일했다. 얼마 안가 할버슨 장로는 자신이 사업 수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

의 형제와 세 회사를 차렸다. 할버슨 미케니컬사, 에이치 앤드 에이치 미케니컬사 및 리코사가 바로 이들이 세운 회사이다.

할버슨 장로는 정치 활동도 많이 했다. 유타 주 의회의 상, 하원에서 총 16년 간 (1966-1982년) 일했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약 10년 동안 유타 주 건축 위원회 위원장 및 웨버 주립 대학교 이사회 이사도 지냈다.

할버슨 가족은 스키, 스노우모빌, 사막 자전거 타기, 낚시, 사냥 등과 같은 역동적인 실외 스포츠 활동을 즐긴다. 이들은 또 말을 조련시키기도 한다.

그는 개인적으로나 직업 세계에서나 자신의 등록 상표라 할 수 있는 왕성한 정력으로 교회 부름을 수행해 왔다.

스테이크 부장 및 부장단 보좌, 지역 대표, 노르웨이 오슬로 선교부장(1990-1993년) 및 유타 북 지역을 관리하는 칠십인 제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다.

"제 간증은 원리에 원리를 더해 가며 조금씩 향상되었습니다."라고 할버슨 장로는 이야기한다.

"전 수년간 개인적으로 매우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

얼 엠 몬슨 장로 -

칠십인 정원회



얼 엠 몬슨 장로는 성전에 관해 강한 간증을 갖고 있다. 교회의 '성전 및 특별 사업부 책임자'로 일하는 동안, 그는 대관장단의 지시 하에 성전 건축 및 디자인을 전담했다. 몬슨 장로는 이렇게 전망한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성전이 활용되거나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강한 세력이 있다는 걸 금방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전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성전을 건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1932년 7월 26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한 몬슨 장로는 활동적인 말일성도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러한 가정 환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간증은 본인 스스로 키워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10대 청소년 시절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면서 한 가지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전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죠. 그러면서 축복본 가운데 제가 원하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있길 원했습니다. 전 정말 잊지 못할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몬슨 장로는 한국 전쟁 기간 동안 2년 간 육군에서 복무하면서 보병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이 복음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갑자기 제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전 제가 얼마나 많이 축복 받은 사람인줄 모르고 있었죠."

몬슨 장로는 유타 대학에서 농학 학사 학위를, 아이오와 주립 대학에서 구조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54년 다나 메이 힐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이들에게는 다섯 자녀와 12명의 손자녀가 있다.

몬슨 장로가 그 동안 받은 부름으로는 스테이크 청남 회장,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 스테이크 선교부장 등이 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평신도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부름은 배우고 도움을 구하는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간증을 강화시켜 줍니다."

몬슨 장로는 새로 받은 부름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아내와 전 많은 축복을 받았고, 살면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죠. 저희는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구세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꼭 해 볼만한 일인 동시에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서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

매릴 시 옥스 장로 -

칠십인 정원회



매릴 시 옥스 장로는 겨우 네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그의 모친은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 가며 세 자녀를 혼자 힘으로 키워야 했다. “저의 간증은 어머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옥스 장로는 이야기한다. “어머니는 위대한 분이시면서 교사이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드리는 기도는 매우 직접적이고 개인적이어서, 전 그 분이 기도할 때마다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이 서서 듣고 계시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1936년 1월 12일 아이다호 주 트윈 폴스에서 태어난 옥스 장로는 프로보에서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선교 사업을 했는데, 그에 따르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간증이 활짝 피어났”다고 한다. 그 뒤 옥스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바로 이곳에서 미래의 아내감으로 유타 주 페이슨 출신

의 조세핀 크리스틴슨을 만났다. 둘은 1958년에 결혼했다. 그는 그 후 로체스터 의과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으며, 켄터키 대학에서 인턴 생활을 마쳤다. 안과 전문의 과정을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 소재 워싱턴 대학에서 했다.

“만일 가만히 방관하고 있으면 의학이 여러분의 간증에 도전을 걸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 살 대처하면, 사람의 몸과 그것이 기능하는 방법에 대해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 구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라고 옥스 장로는 이야기한다.

옥스 장로는 여러 해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의사와 안과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다. 이따금 옥스 자매와 자녀들이 그를 동반하기도 하였는데, 바레인, 중국, 인도같은 나라가 그 대상이었다.

옥스 장로는 감독을 두 차례 역임했고,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다. 현재는 워싱턴 시애틀 성전장으로 있지만, 6월이면 새로운 직책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옥스 장로는 이렇게 대답한다. “복음이 곧 제 삶이죠. 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장로 -

칠십인 정원회



아홉 살난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는 어느 날 주일학교에 참석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한 공과를 듣게 되었다. 그는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 교회가 정말 참된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버진 제 곁에 앉으시더니 요셉 스미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때 이후로 전 한번도 사실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리차즈 장로는 말한다. 그는 1934년 3월 18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나서 자랐다. 학창 시절에는 스포츠, 특히 농구를 좋아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청소년 스포츠 팀을 코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어느 날 한 아가씨가 계단에 서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순간 그는 ‘언젠가는 저 아가씨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1955년 그는 그레이트레이크스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귀환 후 브리감 영 대학교로 돌아온 그는 교실로 들어가 예전의 그 아가씨를 또

다시 만나, 그녀의 이름이 린 앤 태일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은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1957년 8월 23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정착해 살면서 8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이 기간 동안 옥스 형제는 이 시스템(E-System)에서 복지 담당 행정가로 일을 했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 부품과 함께 장비를 조립하는 회사이다. 그는 7년 간 감독단에서, 그리고 14년간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했는데, 그 중 9년은 스테이크 부장으로 지냈다. 또한 지역 대표로 3년을 봉사한 후에는 잉글랜드 맨체스터 선교부장 부름을 받아 1994-1997년까지 봉사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아이들을 기르는 것 외에 아내와 제가 함께 했던 경험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선교부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곳에서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 배웠고, 각 사람의 구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한층 두터워진 리차즈 장로는 교회가 문자 그대로 경이롭고 기이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물론경은 또 하나의 민족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증거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요셉 스미스는 회복의 예언자입니다.”라고 리차즈 장로는 이야기한다. □

네드 비 루에시 장로

칠십인 정원회



1934년 8월 5일 출생해 유타 주 케인즈빌의 한 농장에서 자란 루에시 장로는 어려서부터 일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밤, 사교춤을 좋아하는 그에게 상호향상회 무도회에서 여흥을 돌구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루에시 장로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전 그 모임은 화요일 밤에 가고 일요일에는 예배를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고, 그 결심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1년 뒤 21세가 되었을 때 감독이 그에게 선교 사업을 가라고 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루시에 장로는 멕시코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 1958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조안 세필드와 결혼했으며, 유타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했다. 이들 부부의 다섯 자녀 중 셋째가 태어난 뒤, 그는 IBM사에서 면접 시험을 치렀다. 웨버 주립 대학에서 1년 더 전자 공학을 공부한 루에시 장로는 드디어 IBM사에서 31년간을 근무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회사 밖

에서의 시간은 아내와 가족, 지역 사회,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할애했다. 루에시 장로는 아내를 훌륭한 내조자이자 힘의 원천이라고 묘사한다. 그는 케이즈빌 제1와드와 제6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했으며, 그 후엔 10여 년간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를 지냈다. 그는 활동이 저조한 한 친구와 낚시를 하며 나눴던 대화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다. “자네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난 그걸 원하네.” 이 말은 그 친구의 삶을 바꿔 놓는 전환점이 되었다. “전 사람들과 일할 때 어떤 인도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또한 언제나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을 때 한없는 기쁨을 맛보았죠.”

루에시 장로는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해임되자마자 4년간 바서티 소년단에서 일했다. IBM사를 그만둔 것도 이 기간 동안이었다.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선 더없이 좋은 시간들이었죠.”라고 그는 당시를 회고한다. 실제로도 그후 루에시 장로는 베네수엘라 바르셀로나 선교부장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아 1994-1997년까지 봉사했다.

그는 칠십인 부름에 대해선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내와 전 주님을 섬기는 일이 좋습니다. 전 예언자 요셉 스미스, 물론경,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 구세주, 우리의 구속주, 그리고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 대한 간증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를 삶을 축복해주고 있죠.” □

디 리 토블러 장로 -

칠십인 정원회



“저는 선교 사업을 통해 제가 누구며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인생관이 형성되었습니다.”라고 디 리 토블러 장로는 이야기한다. 그는 1953-1956년 스위스 오스트리아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전 안전하고 굳건한 복음의 토대 속에서 성장했으나, 청소년기 때엔 자신감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선교 사업을 하면서 주님과 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주님이 절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그 후로 전 발전하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따금 좀 가라앉을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시 일어나 향상되고는 했죠. 주님의 축복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토블러 장로는 1933년 7월 25일 유타 주 프로보에서 도날드 토블러와 루이스 쇼엘 토블러의 네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하지만 성장기는 네바다와 아이다호에서 지냈고,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사 학

위를, 그리고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뉴욕 시 소재 엑슨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에 있는 에트나 라이프 앤드 캐주얼티사로 자리를 옮겨 10년 간 일했다. 그 후 텍사스 주 휴스턴의 한 정유 회사에서 4년을 근무한 다음, 1998년 은퇴하기까지 오하이오 주 아르론 소재 비에프 굿리치사에 몸을 담았다. 이 회사에서는 부사장 및 재정 담당 수석 이사직을 맡아 일했다.

토블러 장로는 1956년 달린 튜슨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슬하에 여섯 자녀와 손자녀 열두 명이 있다. 토블러 가족은 오하이오 주 마살빌의 큰 농장에서 살고 있다. 토블러 장로는 1996년 4월 이래 북미 북동 지역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해 왔고, 그 전에는 스테이크 부장,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그리고 감독을 두 차례 역임한 바 있다. “전 무엇보다도 감독으로 부름 받은 걸 좋아했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감독직은 할 일이 많고 힘들지만, 와드 회원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건 크나 큰 축복입니다. 사실 신권에 관련된 것 이든 그 외 어떤 부름이든, 사랑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겠죠. 우선 우린 누구보다 구세주를 사랑해야 하며, 만일 그것이 참 되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사랑하게 될 겁니다.” □

고든 티 와츠 장로

칠십인 정원회



현재 필리핀 퀘손 시티 선교부장인 고든 티 와츠 장로는 이 부름과 그 밖의 경험들을 통해 주님의 예언자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예언자의] 말씀은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1935년 2월 23일 유타 주 사우스 웨버에서 출생해 역시 유타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그는 웨버 주립 대학을 졸업한 뒤 미 공군에 입대했으며, 하와이 제도로 선교 사업을 나갔다. 귀환한 다음엔 유타 주립 대학에서 경영학과 교육학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1963년 9월 19일 로간 성전에서 커니 웰링과 결혼했다.

와츠 장로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매니저로서 32년 간 일하는 동안 많은 곳을 다녀야 했다. 그 결과 와츠 장로 부부와 네 자녀는 미국의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살아야 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텍사스의 로아노키에서 살았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은 와츠 장로 가족

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빌어 한 가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려 노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은 오하이오 주 클리브랜드에서 도시 버스를 한 대 빌려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 회원-선교사 노년의 모임에 간 적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두 명의 이웃이 교회에 들어왔다.

와츠 장로는 아내, 자녀 및 손자녀들과 시간 보내기를 좋아한다. 또한 목공 일, 그림 그리기, 골프 치기, 정원 가꾸기 등도 좋아한다. 원예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전 깔끔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들에 자부심을 느끼죠” 그는 지금껏 감독으로 두 번 봉사했으며,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으로 두 차례 일했다. 1993년 2월에는 지역 대표 부름을 받아 텍사스 주 휴스턴과 플라노 지역에서 봉사했다. 7월이 되면 현재 맡고 있는 선교부장직을 끝마치게 된다.

와츠 장로는 자신이 인생에서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흔들림 없는 직업 윤리와 부모님이 알려 준 복음에 모든 중심을 둔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과 교회와 그 표준에 따른 생활이어야 합니다.” 와츠 장로는 이에 대해 굳은 확신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전 이 사업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

스티븐 에이 웨스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스티븐 에이 웨스트와 마사 앨리스 시어즈 웨스트는 유타 주 로간에 새 집을 사던 날, 텍사스 산 안토니오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기 위한 접견을 받았다. 그로부터 3일 후 부름장이 왔고 두 사람은 서둘러 텍사스로 출발했다. 떠난다는 결심은 그렇듯 쉽게 이루어졌다. 웨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의 간증과 교회의 가르침이 평생 저희로 하여금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는 선교부장 재임시 칠십인 제이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 받았다.

1935년 3월 23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출생한 웨스트 장로는 미국 북서부 주에서 선교 사업을 한 후 유타로 귀환했다. 그런 다음 유타 대학에서 학사 및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스티븐과 마사는 1960년 3월 21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 사이엔 세 자녀가 있다.

졸업 후 웨스트 장로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판사 및 법

률 사무소 일원으로 근무했다. 일년 후 메릴랜드 주 베데스다에 있는 매리웃 사에 들어갔는데, 입사 후 얼마 안 되어 매리웃 인터내셔널사의 수석 부사장과 총고문 자리에 올랐다.

그러다 1994년 은퇴해 아내 마사와 함께 유타 주 로건으로 돌아왔다. 그리곤 곧 선교 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감독, 감독단 보좌, 고등 평의원, 워싱턴 성전 인봉자로 봉사한 웨스트 장로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늘 감사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은 무엇보다도 콜롬비아 특별지구의 한 작은 도시의 지부장단 보좌로 봉사하면서 특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저희에겐 더없이 좋은 경험이었죠.” 그는 아직도 그곳 회원들의 “경이에 가까운 신앙과 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한다.

“저희 텍사스 산 안토니오 선교부의 주제 성구는 니파이 삼서 5장 13절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로 영생을 얻게 할 뜻으로 주께 부름을 받은 자라.’

전 이 성구를 말할 때면 늘 흥분이 됩니다. 이 말씀엔 제가 되고자 하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

로버트 제이 웨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칠십인 제이 정원회 일원으로 새로 부름 받은 로버트 제이 웨튼 장로는 두 개의 문화에 젖어 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었다고 이야기한다. 1943년 4월 12일 멕시코 북부의 말일성도 관할 지역에서 태어난 웨튼 장로는 그곳의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스페인어와 영어, 멕시코 역사와 미국 역사를 사랑하면서 성장했다.

멕시코에서 출생했지만 성장기를 주로 미국에서 보내 그와 비슷하게 두 문화와 두 언어를 사랑하게 된 아내 라쿠엘 로페즈를 만난 것은 그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었다. 두 사람은 1966년 12월 17일 애리조나 성전에서 결혼해 여덟 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들은 장차 외국에 살아가도 이를 즐기자는 데 동의했다. 실제로 그는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마친 후 한 국제 금융 기관의 일자리 제의를 받아들였다. 웨튼 가족은 수년간 멕시코와 남미 여러 지역에서 생활했다. 그는 이 회사를 그만 둔 다음엔 텍사스 주 엘파소에 살면서, 컨

설팅 회사, 전자 제품 제조업체, 또 다른 금융 기관 등지에서 일을 했다. 그러다 엘 파소 소재 노스웨스트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에, 파라과이 아순시온 선교부를 관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웨튼 장로는 직장 경력과 교회 봉사(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선교부장단 보좌 역임)를 통해 크게 발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감사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받은 새 부름은 주님께 “갖고 있는 모든 걸” 바칠 기회가 될 것이다.

웨튼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는 주님과 그분의 사업을 사랑합니다. 저희 내외는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요청이든 기꺼이 받아들여 수행할 것입니다. 전 아내를 보고 있노라면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고, 축복 또한 많이 받았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웨튼 장로는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자신이 봉사하게 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길 희망한다.

그는 모로나이서 7장 48절을 인용하면서 “인생의 소중함 교훈은 대부분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모로나이서 7:48)

웨튼 장로는 설명한다. “인생은 덧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좀더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레이 에이치 우드 장로 -

칠십인 정원회



레이 에이치 우드와 앤 에 이렛 우드 부부는 가족을 단합시키고 주님께 좀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1978년 산 후안 바우티스타로 이주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인구 1,100명의 소읍이다. 이들은 사라토가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떠나와, 농장에는 하나 사서 과수원을 만들었다. 우드 장로는 이렇게 회고한다. “아이들은 늘 새벽 4시 30분이나 5시쯤 일어나, 밖에 나가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곤 했죠. 그러곤 세미나리 반으로 달려갔고, 그게 끝나면 학교엘 갔습니다.” 우드 장로의 여섯 자녀 가운데 두 명은 지금도 당시 경험이 복음에 헌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드 장로 부부는 1955년 8월 8일 로간 성전에서 결혼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교회에서 활동 회원으로 남으며, 영원한 가족을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그는 아내 앤이 자신을 잘 내조해 주며 무사히 감독, 감독 보좌, 스테이크 부장 보좌 및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우드 장로는 솔트레이크 이글 게이트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던 중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의 부름을 받았다.

우드 형제는 1931년 7월 11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레이 지 우드와 메리 헌터 우드 슬하에 태어나, 1950-1952년 잉글랜드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귀환하자마자 그는 유타 대학에서 학사 및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솔트레이크에 있는 회계 법안에서 근무했다. 1958년엔 미 공군에 입대해, 워싱턴 주 스포케인과 유타 주 욕돈에 주둔하면서 3년간 군법무관 생활을 했다. 그런 다음 솔트레이크로 돌아와 2년 간 피트 마워크 밋첼을 위해 일했다. 그 후 콜로라도 주 덴버로 전근 가서 2년을 머물고, 다시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로 갔다. 1982년 세무 관청의 관리로 은퇴하기까지 출근 이곳에 머물렀다. 후일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온 그는 교회의 세무 행정 책임자로 일하다가 1997년에 퇴직했다. 우드 장로는 또한 14년 간 유타 주 세수 검토 위원회에서 봉사하기도 했다.

우드 장로는 주님이 자신의 가족 생활을 인도하는 큰 나침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고 있다. 그는 또 새 부름에 대해 더욱 겸손해 하고 있다. “주님은 저희를 축복하셨습니다. 저희는 훌륭하게 봉사할 순간이 다가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역소식

특집기사

선교사업이 나에게 미친 영향

한국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개원 이래 많은 선교사를 배출했으며 그 숫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이 개원하기 전에도 선교사가 배출되었지만 본격적인 선교사 교육은 한국 선교사 훈련원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의 선교 사업이 시작된 지 반세기를 지나면서 2세 선교사도 속속 나 오고 있는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형제 또는 자매가 동시에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마친 형제, 자매는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대변자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1980년부터 1998년 5월까지 총 2058명(장로 1037, 자매 1021)의 선교사가 배출되었다. (자료 제공 한국 선교사 훈련원) 총 181명(장로 97명, 자매 84명)을 배출한 1989년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올림픽이 열린 1988년은 165명, 1990년은 174명을 각각 배출시켰다.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한국인 선교사는 1989년을 지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1996년에는 다시 100명 이하로 감소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84명만 배출되었다. 올해는 지난 5월말 현재로 34명이 선교사 훈련원 교육을 마치고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하루 빨리 1989년의 기록을 능가하기를 기대하며 이 란에서는 최초의 한국인 자매 선교사 중의 한 명인 전종숙 자매와 현재 각 선교 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간증을 수록해 본다.



전종숙

서울 북스테이크
원당 외도

27년 전으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나의 개종 당시 모든 기억들은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다. 1971년에 난 새롭게 태어났다. 침례 받았을 즈음 웬만큼 철이 들어 있었는지 그 당시 두 분의 선교사로부터 받았던 영의 느낌은 참으로 특별했다. 요셉 스미스의 시현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은 조금도 저항할 수 없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자유의지, 거기에 따른 책임 등 새로 배운 복음의 원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삶에 대한 불만이나 남에 대한 원망을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세로 바꾸어 놓았다.

개종한 지 일년이 되어갈 무렵 한국에서도 자매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나는 지부장님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여쭙었고, 지부장님은 간증을 갖고 있는 자매면 누구나 부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로 나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 위해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얼마 후 나는 어머니의 전승을 받으며 고속 버스에 올랐다. 그때 내 머리 속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던 걸 기억한다. 선교 사업을 마칠 때까지도 그 말씀은 항상 나의 뇌리에 새겨져 있었다. 선교사로 일하는 동안 나는 내가 매일 봉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하루하루가 배우는 시간이었다. 참으로 지금까지 내가 영원히 빛진 자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나의 작은 봉사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갚아드릴 길이 없으니 말이다. 스물 네 살에 선교 사업을 떠나는 딸에 대한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은 나의 결혼 문제였지만 주님께서도 역시 나의 필요 사항을 잘 알고 계셔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곧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오늘까지 행복한 가정을 키워 오고 있다. 얼마 전에 딸아이

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고, 이제 아들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하고 있다. 딸아이가 임지에서 보내 오는 편지들을 읽으면서 나나 그 아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매번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선교 사업을 통해 자신의 완전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그가 주신 가르침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구도자들의 마음을 참된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이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시며, 살아 계신 예언자의 인도를 받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의 유일한 참된 교회임을 안다. 이 값진 지식을 누구에게나 기회 있을 때 스펀 없이 나눌 수 있는 게 기쁘고 감사하다.



김영희 자매

대전 선교부

우리의 소망이 합당하고 의로운 것이려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는 하나님

의 약속을 믿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가졌던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이 10년만에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던 일과 나이 때문에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을 준비시켜 주셨고 별 다른 문제없이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선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짧게만 느껴졌던 시간이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 지나서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5월 9일 목포에서 두 자매님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침례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천사였습니다. 박자매의 얼굴은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찼고 기쁨을 어떻게 하지 못하며 웃도 같아 입지 않은 상태로 두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 자매는 침례를 받고 올라와 물이 흐르는 옷을 입은

제로 나를 안으며 계속 고맙다는 말을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선교사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성신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와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참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지열 장로

부산 선교부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 부모님이 교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교 사업을 나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 다. 선교 사업을 나오기 약 한 달 정도 전부터 군대 문제, 학업 문제, 친구 문제 등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 고민하다가 매일 새벽 3-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를 치료하고 있던 터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화를 자주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교 사업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 입소일이 다가오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슬펐고 지금은 선교 사업을 나갈 시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입소한 장로, 자매들은 모두 저보다 영적이고 훌륭했기 때문에 그곳에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좌절하기 시작했고 그런 느낌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물몬경에서 "나의 부족함으로, ...다만 너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어 너희로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물몬서 9:31)을 읽고 주님이 저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더 이상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잠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부족함을 느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즉시 채찍질 해 주셨습니다. 이제 선교 사업을 나온지 막 한 달이 지났습니 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많은 주님의 사랑과 그분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 생애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과 주님은 우리들을 진정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간증 드립니다.



강호진 장로

서울서 선교부

두 분의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누님(모두 귀환 선교사업)의 적지 않은 영향을 통해

선교 사업을 결심하게 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푼 가슴을 안고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었그제 시작한 것 같은 선교 사업이 이제 귀환의 날이 다가오니 조금은 두렵고, 섭섭하기만 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느꼈던 진정한 행복. 이것은 저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구도자를 찾고, 가르치면서 몰라보게 변화되는 제 자신을 보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복음을 배우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이 훨씬 더 훌륭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개종자 중 한 분이 이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새 삶과 목표와 희망과 한아름의 기쁨을 준 이 복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분이 어떠한 느낌으로 이 간증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교 사업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을 하는 제 자신에게 아주 큰 간증과 신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복음, 교회, 진리가 참됨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김선아 자매

서울 선교부

1995년 9월 22일 침례를 받은 후로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고자 하는 소망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1997년 3월 31일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특히 두 번째 지역에서 저의 간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인 자매의 개종이 한 예입니다. 영어 회화반을 통해 이 복음을 접한 인 자매님은 복음에 대해 평안한 느낌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침례에 대해 다소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 문제들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같은 시간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자매님을 만났을 때 뜻밖에도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침례 결심을 하였습니다. 침례 받은 후 침례에 대한 느낌을 물었을 때 "아주 행복해요."라는 자매님의 말씀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선교 사업은 제가 이 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들을 배우고 따를 때 얼마나 많은 축복과 기적들을 맞볼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교 사업은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큰 축복임을 간증으로 전해 드립니다. 이 사업은 참으로 위대하며 우리의 영성과 간증을 발전시켜 줍니다.

러시아 성도들 한국 서울 성전 방문

블라디미르 니지파로프 러시아 극동 지방부장 등 6명의 회원들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성전에서 앤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았다. 이들을 위한 앤다우먼트 의식에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렉스 디 피네가 장로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웅, 김종열 장로 및 서울 인근 지역의 스테이크 부장 내외가 참여하였다. 가족 인봉을 받고 나온 블라디미르 지방부장 내외, 그들과 함께 온 빅토르 형제, 러시아에서 선교사업을 했던 김기용 형제, 한인상 성전장과 간단한 인터뷰를 하였다. — 편집자 주

기자: 한국을 방문하신 목적은?

블라디미르 지방부장(이하 블라디미르): 한국, 일본, 극동 러시아는 모두 북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으며, 러시아 성도들이 한국에서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성전을 방문하고 성전의 의식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기자: 성전 의식을 받고 난 소감은?

블라디미르: 4년 전에 미국 포틀랜드에서 저와 제 아내는 성전 의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장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이 성전 의식이 첫번째 의식입니다.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 의식을 받는 동안에 아주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온함을 느꼈으며 매우 즐겁습니다. 일상 생활의 많은 일들을 뒤로 한 채 이곳에 온 지금 저희 가족은 오직 평온함을 느낄 뿐입니다.

기자: 언제 어떻게 침례 받았는가?

블라디미르: 1992년 9월 6일에 캐나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캐나다인 물론인데, 그가 제게 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캐나다로 업무상 여행을 하던 중에 선교사들을 만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자: 성전 의식을 받고 난 자매님의 소감은?

블라디미르 자매: 제 느낌도 남편의 느낌과 동일합니다. 매우 특별한 느낌을 받았으며, 행복하고 평온하며 활력을 느낍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기자: 러시아에서의 교회 발전은?

블라디미르: 1993년 6월 7일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2,000km 정도 떨어진 마그단에 첫번째 지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후 1996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새로운

지부가 조직되었습니다. 현재 교회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블라디보스토크에 두 개의 지부가 조직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의 교회의 장래는 매우 밝습니다.

기자: 한국의 인상과 한국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블라디미르: 이미 저는 작년 11월에 역원 훈련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이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매우 친밀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매우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매우 친절하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기자: 러시아 극동 지역의 교회와의 인연은?

김기용: 저는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첫번째 러시아 지역에서 봉사할 복지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선교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당시 북아시아 지역 회장이셨던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동반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형제를 만나게 된 것은 바로 1993년 8월의 일입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형제는 지부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와의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 저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아주 인상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995년에 하바로스크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지 선교사로 봉사하다 귀환한 후, 1997년에 다시 하바로스크로 가서 4월말까지 봉사하다가 귀환했습니다.

기자: 오늘 의식에 참여한 분들은 누구인가?

김기용: 블라디미르 니지파로프와 그의 아내 리나, 그리고 장모인 뷔라, 다른 가족인 빅토르와 그의 아내 나탈리아, 딸 머리나, 그렇게 모두 6명입니다.

기자: 성전 의식을 받고 난 소감은?

빅토르 형제: 더욱 많은 러시아 성도들이 서울 성전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한국을 알게 되고,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한국과 제 여행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 성도들에게 한국에 대해 말하겠



니다. 제 친구들과 교회 회원들이 한국과 제 여행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자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자: 성전장으로서 러시아 회원들을 맞은 소감은?

한인상 성전장: 이번 러시아 성도들과 함께 앤다우먼트 의식은 한국 최초의 러시아어 의식으로서, 동러시아 형제들이 성전까지의 거리가 멀고 비용이 많이 들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여행도 체류 기간이 6월 20일(토요일)부터 23일(화요일)까지여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통 월요일은 준비하는 날로서 성전 의식이 없지만 북아시아 지역 회장님의 요청으로 오늘 특별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아주 특별한 영적 느낌을 갖는 훌륭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앞으로 아시아 대륙의 여러 나라 — 북한, 중국, 몽고 그리고 러시아 — 에도 그리스도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블라디미르 지방부장은 오는 9월이나 10월 에도 러시아의 성도들이 한국 서울 성전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피네가 장로는 "이들을 보는 저의 마음이 아주 흡족하고 기쁩니다. 놀라운 신앙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교회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러시아 회원들이 한국에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올 것입니다."라고 말했으며, 피네가 자매는 "성전에 오기 위해 그들은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단지 성전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주위의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질문:

비축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식품 저장은 "다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이다."

1. 일상 먹는 식품을 비축함.
2. 저장 식품의 다양성과 활용성과 영양가를 고려함.
3. 교체하는 것은 효율적인 식품 비축의 열쇠가 됨.

(1987년도 상호부조회 교재 331-334페이지에서 발췌)

독자의 의견:

1. 쌀 때 구입하여 비쌀 때 사용한다. (적정기에 수확되어진 것)
- 야채 및 과일은 제철에 구입하여 비수기에 사용할 수 있다.
- 사과는 봄(2-3월)에 구입하는 것이 싸다.
- 미숫가루는 가을에 준비, 봄에 만들어 여름에 먹는 것이 좋으며 밀반찬은 3년 이상 보관 가능하며 통조림은 1-2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2. 일요일 가정 방문시 물건을 구입하기 보다는 비축한 물건을 가져 간다.
3. 음식 및 기타 적음이 어려운 새로운 선교사에게 비축한 물건을 나눈다.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권복순 자매)

가정에서 꼭 필요한 쌀은 한 가마에 식용유(한 공기)를 고루 섞어서 통에 보관해 두었더니 벌레 및 변질을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비축에서 중요한 것은 제철에 맞는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으며 저의 경험으로는 매달 형제가 월급을 타오면 사야 할 물건의 품목을 하나가 아닌 두 개씩 더 구입하여 두었더니 가정 경제가 어려울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오신규 자매)

가정 비축 프로그램

우리는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

처럼 물질적인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권고를 받았다. 역경의 시기에 우리가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더욱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교리와 성약38:30) 비축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주식 식품인 쌀, 보리, 콩 기타 잡곡은 수확철에 구입하여 통풍이 잘 되는 곳에 1년분을 비축하고 녹말가루, 도토리가루, 당면은 오래 두어도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비축하여 필요시에 사용한다.

부식품으로는 갑육과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하여 멸치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새우젓, 멸치(액젓)는 직접 어시장에서 사서 담그면 1년 이상 비축이 가능하다. 콩나물콩을 비축하여 콩나물을 길러서 일년 동안 내내 먹고 이웃과도 나누어 줄 수 있다. 알칼리도가 많은 긴조한 다시마와 미역을 많이 비축하여 조미료를 쓰지 않고 대신해서 국물을 만들 때 사용한다. 고춧가루는 주스병이나 항아리에 담아 맨 위에 소금을 넣어 그늘에 두고 사용한다.

계절적으로 나오는 과일은 도매상에서 구입하면 경제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불인데, 물은 빈 항아리에 항상 담아두고 불은 부르스타를 준비하고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여유있게 준비한다. 가족을 위해 일년분의 식량, 연료, 의복 등을 비축하라는 계시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복지 가정 비축 프로그램에 아주 중요하다.

(서울 스테이크 삼청 와드 유신기 자매)

다른 모든 일이 다 그러하지만 비축 프로그램이야말로 평소애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과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겠다는 결심, 그리고 치밀한 사전 계획이 없이는 항상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얼마 전에 직장 따라 바닷가 작은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 비해 시골은 아파트 단지 안에도 콩이나 고추, 토마토, 열무, 알타리, 상추등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이 있어서 씨뿌리고 모종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름 주고, 김 매고, 퇴비를 만들고, 토마토와 가지에

는 지지 막대를 세워 주고, 토마토가 자라기 시작하면 눈 쳐주기를 해 주고... 밭의 넓이가 채 다섯 평도 되지 않는데 퇴근 후 한두 시간이나 출근 전 한시간 가량을 꼭 돌보아 주어야 하였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아두면 요긴할 곡식 및 채소, 과일 저장 요령을 몇 가지 적어 본다.

· **감자**: 일반적으로 저온, 그늘, 땅속에 보관하지만 해가 바뀌면 싹이 터서 먹지 못하는데, 가을에 거둔 감자를 추운 겨울날 명석 위에(다른 자리류도 무방)쌓아 놓고 물을 흠뻑 뿌려 얼린다. 완전히 얼면 큰 함지에 물을 채우고 언 감자를 담아 놓아 두면 물색이 변하면서 감자의 아린 독소가 빠져 나온다. 여러 날 동안 물을 갈아주며 감자를 우려 낸 후 건져서 말린다. 바짝 말리면 마치 돌처럼 굳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벌레도 타지 않고 몇 년을 보관해도 상하지도 않는다. 먹을 때는 가루를 내서 떡을 해도 좋고, 부침이나, 수제비 기타 손쉽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직접 농사 짓지 않는 회원은 가을 추수기에 감자를 싸게 사서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훌륭한 비축 음식이 된다.

· **과일**: 일반적으로 "과일을 보관하는 방법은 쥘"하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건조"시키면 좋은 과일이 많다. 예로 살구, 바나나, 포도, 배는 갈아서 페이스트(즙)형태로 만들어 병조림처럼 밀봉 보관하면 좋다.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갈지 않고 적당히 덩어리가 남아 있는 "메말레이드" 형식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 **채소**: 배추가 쌀 때 사다가 김장담그는 것 외에 그냥 소금으로만 절여서 독에 담아 묻어 두거나 얼지 않게 보관해 두면 오히려 김치와는 또 다른 별미를 만들 수 있다. (대구 스테이크 경주 지부 김영균 형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8월—어린이들을 어떻게 성찬식에서 경건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가?

(보내실 곳: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담당자 앞)

교회 집회소의 미화 프로그램 시작



한국 관리 본부 시설부 운영 관리과에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권고에 따라 “집회소 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집회소 미화 프로그램”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사무실이 있는 일본에서 3년전부터 실시하여 일본에 있는 많은 교회 건물에서 실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회가 더 깨끗해졌고, 회원들이 교회를 더 아끼게 되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집회소 미화 프로그램”이란 건물을 사용하는 교회 회원들이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집회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며, 건물의 상태를 현남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97년도부터 시작하여 서울 북스테이크 북반 와드, 서울 스테이크 삼청 와드, 서울 서 스테이크 노량진 와드, 청주 스테이크 북대 와드,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에서 실시되었다.

이 모임은 98년도 하반기에도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는 집회소 중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와드 건물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실시되어 앞으로 거의 모든 교회에서 미화 프로그램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집회소 미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광주 스테이크의 경우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4월 14-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센터를 겸하고 있는 충장 및 백운 와드에 대한 “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7일은 오후 5시까지 오전, 오후, 저녁 시간대로 나누어 연 인원 100여 명 정도의 형제 자매들이 각자 지정된 시간에 스테이크와 관리 본부에서 마련한 계획에 따라 즐겁게 봉사하였다. 스테이크 부장단을 비롯

하여 감독/지부장 및 참여한 회원들은 퇴근 후의 피곤함을 잊고 기꺼이 봉사하였으며, 이들 중에는 일부러 휴가를 얻어서 하루 온 종일을 바친 회원들도 있었다. 이 일을 통하여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었고, 서로간에 더욱 깊은 형제애를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4월 25, 26일에 개최된 스테이크 대회를 훌륭하게 준비 할 수 있었고, 모처럼 스테이크의 단결된 힘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최중배)

서울 서 신학연구원

대학부 2/4분기 합동 모임



서울 서 신학 연구원 산하 6개 스테이크 (서울 서, 안양, 강서, 서울 북, 인천, 수원)의 독신 성인 180여 명은 지난 6월 6일 대학부 합동 모임으로 삼악산 등산 여행을 하였다. (최정숙)

서울 동 신학연구원

체육 대회

지난 6월 6일 서울 동 신학 연구원 소속의 서울, 서울 동, 동대문, 영동 스테이크에 속한 독신 70여 명 참석한 체육 대회가 서울 동 신학 연구원 주최로 동대문 스테이크 용두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박병규 한국 교회 교육 기구 대표와 조만구 동대문 스테이크 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미경)

영동 스테이크

아론 신권 회복 기념일 행사

서울 영동 스테이크의 아론 신권 기념 행사가 아론 신권 소유자 및 장로 신권 이상 대제사 신권 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테이크 센터에서 5월 16일 열렸다. 이 모임에서는 청소년의 발표 및 대화의 시간을 통

하여 요즘 청소년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이의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게임들을 통하여 상호간에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마당 체육 대회

지난 5월 5일 영동 스테이크에서는 한마당 체육 대회가 신천동 잠실 중학교에서 회원과 구도자 및 선교사 5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와드 지부별 대항으로 진행된 이 모임에서는 성남 와드가 축구, 줄다리기에서 우승을, 피구 및 족구는 성남 중앙 지부가 우승을 릴레이는 잠실 와드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종합 성적은 여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성남 와드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인천 스테이크

체육 대회



지난 6월 4일 지방 선거 공휴일을 맞아 인천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박동화 부장의 감리하에 체육 대회가 열렸다. 농구와 피구 배구 등 세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농구와 피구는 계산 와드, 배구는 용현·연수 와드 연합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성열)

부산 스테이크

울산 지역 노년의 모임

지난 5월 10일 울산 신정 와드에서는 한인 상 서울 성전장과 부산 스테이크 부장단, 울산 지역이 성도들의 참여한 가운데 노년의 모임이 개최되었다. (김현주)

부산 신학 연구원 바운티풀 축제

지난 5월 9일 부산 서 지방부 대신 지부에서는 부산 신학 연구원(대학부 평의회장-천익주 형제) 바운티풀 축제가 있었다. 이 축



제의 제1부에서는 무도회(진행-정명환 형제, 장미란 자매, 김종은 자매), 제2부에서는 요리 경연(진행-성지나 자매)이 진행되었다.

특별 귀환 선교사 모임

지난 5월 31일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에서는 부산 스테이크 선교부가 주최한 특별 귀환 선교사 모임이 있었다.

양기욱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부산 스테이크에 거주하는 귀환 선교사와, 현재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이 함께 하였으며 준비된 연사들의 말씀을 듣고 약 20분씩 분반하여 회원 선교 사업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론 신권 회복 기념 행사

지난 5월 16일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는 아론 신권 회복 기념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의 1부 순서에는 양기욱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과 신영일 형제(온천 와드)의 간증에 이어서 온천 와드의 정원봉 형제가 신권에 관한 워크숍을 하였고, 2부 순서에서는 청소년 포크 댄스가 진행되었다.

체육 대회



지난 6월 6일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송림 공원에서는 9개의 와드, 지부가 모여 부산 스테이크 체육 대회가 열렸다.

양기욱 스테이크 부장의 환영 인사에 이어 100미터 달리기, 농구, 배구, 피구, 축구, 자매 단체 줄넘기 등의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릴레이 달리기때는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대회 결과 1등

은 수정 와드, 2등은 해운대 와드, 3등은 연산 와드/양산 지부가 차지하였다. (이희숙)

청주 스테이크

독신 성인 홍복 양로원 봉사 활동

지난 5월 30일 청주 스테이크의 독신 성인들이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소재한 홍복 양로원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에는 30여 명의 독신 성인들이 참여하여 양로원 건물 전체 청소와 잡초 제거 작업을 했다.

청주 스테이크에서는 각 정원회별로 홍복 양로원을 위한 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중부 신학 연구원 대학부에서는 홍복 양로원을 위한 "1인 1구와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에는 1인이 1,000원 이상 은행 계좌나 지로를 통해 입금할 수 있다. 중부 신학 연구원(0431-271-9415)으로 연락하면 누구라도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대전 스테이크

체육 대회

지난 5월 5일에 대전 스테이크 소속 회원들과 구도자들은 대전 유봉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대회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청팀(선화, 공주, 유성)과 백팀(삼성, 둔산, 금산, 논산)으로 나누어 농구 배구 축구 발야구 및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경기들이 진행되었다. (심재선)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

새로 조직된 대전 스테이크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가 지난 5월 2일 삼성 와드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은 재능 발표와 찬송가 부르기가 각각 1.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발표 결과 재능 발표 부문에서는 재미있게 에어로빅을 선보인 유성 와드가, 찬송가 부르기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관객의 호응을 얻은 금산 지부가 각각 우승을 하였다. (홍발해)

전주 스테이크

합창 경연 대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5월 2일 '가족은 영원해'라는 주제

아래 합창 경연 대회를 가졌다. 약 250여 명의 음악에 관심 있는 회원과 구도자들이 참석한 이 대회는 1부 가족 중창 대회, 2부 와드·지부 중창 대회로 진행되었다.

1부의 최우수상은 '그대와 함께라면'을 부른 중앙 와드 심인섭 형제와 김경애 자매 가족이 수상했고, 우수상은 '친절한 말을 서로 하세'를 부른 이리 와드 조애련 자매 가족, 장려상은 '내가 만일'을 부른 이리 와드 정대영 감독 가족이 수상했다.

지정곡 '가족은 영원해'와 자유곡 1곡을 부른 2부에서 최우수상은 노송 와드, 우수상은 중앙 와드, 장려상은 군산 와드가 수상했다.

스테이크 대회

지난 5월 16, 17 일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엘 라이 오널 캔드리 장로의 감리로 1998년도 전반기 전주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과 역원 훈련 모임에서 캔드리 장로는 신권 지도자들의 역할과 평의회의 구성과 활용, 그리고 개종자 소개에서 침례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평의회에서 해야되는 사항들을 교육했다.

또한 일요일 총회에서는 이효종 스테이크 부장, 홍병식 대전 선교부장, 진재명 형제, 캔드리 장로의 말씀이 있었다. 특별히 14년 동안 구도자로 지내다가 최근에 침례를 받은 진재명 형제는 가족의 소중함과 복음의 훌륭함에 대해 간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주 와드의 김재륜 형제를 비롯한 총 6명의 형제들이 장로로 지받았다. (김광일)

광주 스테이크, 순천 지방부

체육 대회



지난 6월 6일 나주 금천 원에 고등학교에서 광주 스테이크, 순천 지방부 합동 체육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오전에는 광주, 순천 전체 활동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광주대 순천의 경기가 청소년과 초등학교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광주 스테이크에서 순천 지방부로 분리된 후 처음 함께 하는 체육 대회는 이 지역의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박유미)

광주 스테이크

“결혼 이야기”

지난 5월 23일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에서는 약 60여 명의 독신 성인과 기혼 성인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결혼 이야기”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되었고 기혼 성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홍세라)

노년의 모임

지난 5월 10일 광주 스테이크 침단 지부에서 침단 지부 탄생을 위한 노년의 모임이 약 9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송정 와드의 안성진 감독과 침단 지부장인 정한채 형제의 말씀에 이어 임종하 광주 스테이크 부장이 선교 사업에 더욱 매진 할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다. (박유미)

강릉 지방부

김기석 강릉 지방부장 국민 포장 받다.



국민 포장을 받은 김기석 지방부장. (왼쪽에서 세번째)

제17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김기석 강릉 지방부장이 교육 발전에 공이 큰 모범 교원으로 선정되어서 국민 포장을 받았다. 지난 5월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민 포장을 받은 김 형제는 현재 속초 중앙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승진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아들을

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최고의 원리”라고 수상 소감을 밝힌 김기석 지방부장은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서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감사했다. “가장 훌륭한 선생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선생이 되고자 오늘도 노력”한다는 김형제는 7년 전에 모든 가족과 함께 개종했다. (허용환)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말일성도

지난 5월 18일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말일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 동안 가까이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회원들은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강경구(안산 와드), 감구영(분당 와드), 고원용(서초 와드), 김용원(마포 지부), 박종욱(화곡 와드), 유원선(안양 와드), 이리라(청운 와드), 이은상(성동 와드), 이재욱(일산 와드), 아종우(만수 와드), 정해영(강서 와드), 허정훈(소래 지부), 홍지연(원당 와드) 모두 13명이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원은 정해영 형제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81-7056)

천리안 말일성도방 개편

천리안 말일성도방(GO SCLDS)이 새롭게 바뀌었다.

지금까지 비공개로 회원들에게만 공개가 되었던 말일성도 방이 이번에 공개방으로 바뀌면서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되어 그동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궁금해 하던 일반인들에게 많은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그 동안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일성도방의 시삽으로서 일해 오던 박인규 형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존에 다섯 개의 작은 코너만을 가졌던 말일성도 방이 교회 소개에서부터 독신 성인에 대한 소식, 성전에 대한 소식, 신학 연구원과의 만남 등 유익하고 새로운 코너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참고 : 말일성도방은 초기 화면에서 GO SCLDS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박인규 형제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인규 형제 H.P : 011-407-5817, 집 : 0416856-5817 천리안 ID : ZPSPIK, HAVARD7)

새로운한국 관리본부 대표 최윤환 형제 취임



지난 6월 1일 최윤환 형제가 새로운 한국 관리본부 대표로 취임했다. 최윤환 형제는 미국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분교에서 정보 경영학을 전공했고, 유타

주립대 경영 대학원에서 정보 교육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최근까지 CDC & MBS 벤처 캐피탈 주식회사 투자부 영업이사로 재직했었다.

교회에서는 안양 스테이크 시흥 와드 감독에 이어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로 봉사했으며, 현재는 안양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210기 4명



곽송희

영동 스테이크
오론 와드
부산 선교부



김수자

순천 지방부
여천 지부
서울 선교부



이기철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
서울 선교부



이종갑

강릉 지방부
주문진 지부
부산 선교부